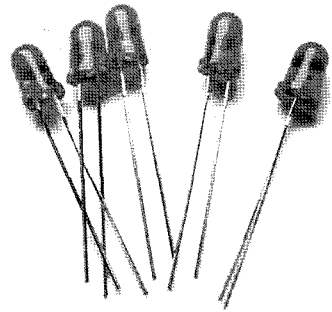


LED(Light Emitting Diode) 조명 보급 속도낸다.

올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LED조명에 110억원 지원

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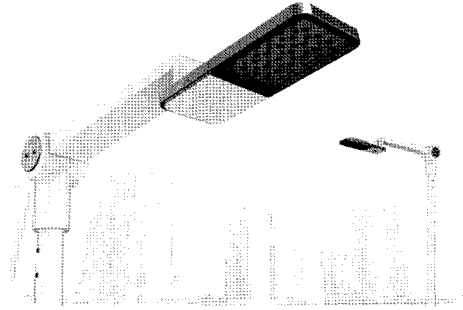
- 지식경제부는 高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절감과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력 효율향상사업에 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 달 시행 공고를 통해 집행할 계획임
-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新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LED조명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110억원을 배정하여 전년도 대비 2.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음



지원품목

- 올해 지원되는 품목은 LED조명, 변압기, 인버터 및 서민층 高효율조명기기 등임
- LED조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유도등, 할로겐, 백열등 등을 LED로 교체(또는 신설) 설치할 경우 일정액(50%내외)의 보조금을 지원함
 - 시장가격 조사 결과 '09년 대비 LED 가격이 5~10% 하락됨에 따라 적정 지원단가를 반영하여 기기별 보조금 지원 수준 결정 예정임

- 특히, 올해 LED지원사업에는 2014년 백열등 퇴출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물부과 협조하여 양계장 등 농어업용 백열등 대체 LED보급 사업에 3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임
- 또한, 에너지관리공단에 “LED조명 보급협의회”를 두어 지원대상 LED조명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원품목, 지원단가 등을 결정할 계획임
- 한편 서민층 조명기기 교체 지원사업에도 약 191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가구 약 70,000호와 사회복지시설 약 350개소에 노후화된 조명시설과 전기배선 등을 무상교체할 예정임
- 이밖에 고효율 변압기와 인버터에도 각각 15억원, 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, 안정기와 조명제어에도 76억원을 지원할 계획임



추진체계

- 그 동안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기획·평가 및 사업관리는 한국전력공사(전력기반센터)가 담당하고, 사업집행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음
- 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과당경쟁, 이중관리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
- 사업 기획·평가 및 사업관리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담하고, 사업집행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전이 담당토록 하였음

기대효과

- 지식경제부는 올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연간 약 678GWh의 전기를 절약(284,760 CO₂톤 감축)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이 전력량은 약 20만 가구의 연간 전기사용량에 해당됨